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SUMMER 2018 | VOL. 190



여름 이야기

올해 '임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사진 부문 대상을 받은 '엄마와 솔래잡기' 사랑이를 입양한 그날부터 딸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는 다정한 아빠 홍태성 씨의 작품입니다. 엄마와 솔래잡기를 하는 사랑이, 너무 귀엽죠? (4P 계속)

- 04 아름다운 행복
- 08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 11 우리 함께 키워요
- 14 홀트 인터뷰
- 18 Love In World
- 20 희망풍경 1
- 22 희망풍경 2
- 24 희망풍경 3
- 28 나눔기업
- 30 Holt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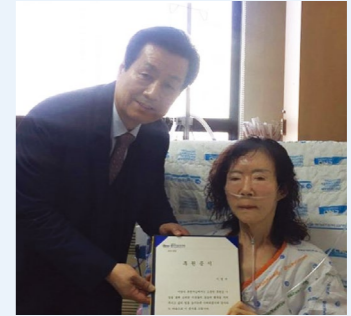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90호 · 계간 **발행일** | 2018년 6월 15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유덕진(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엄민웅(일산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전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강원사무소 경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구사무소 부산사무소 인천사무소 전북사무소 충청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www.kwholt.or.kr T.033)251-2344 www.kgholt.or.kr T.031)217-5999 www.gjholt.or.kr T.062)227-8877 www.dgholt.or.kr T.053)756-0183 www.bsholt.or.kr T.051)465-0224 www.icholt.or.kr T.032)424-0145 www.jbholt.or.kr T.063)288-0880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홀트학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1)914-6631 T.031)915-2911 T.031)929-1400 T.051)543-2431 T.031)790-2900 T.053)746-7501 T.051)760-3600 T.053)563-1007 T.033)251-8014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입양가정지원센터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홀트미추홀 전주영아원	T.031)790-2966 T.02)6938-5550 T.053)627-8875 T.062)363-8878 T.032)424-5839 T.032)424-1391 T.070)8210-1601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마포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홀트어린이집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53)746-7504 T.02)334-4743 T.02)375-6755 T.031)217-0437 T.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뜰 고운뜰·홀트고운학교 아침뜰 마포클로버 대전클로버 대구클로버 광주클로버	www.holtarum.or.kr T.02)334-4614 www.goun.or.kr T.031)216-9004 www.achim.or.kr T.042)585-3004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www.djclover.or.kr T.042)583-4006 www.holtlove.or.kr T.053)654-0181 www.holtlove.or.kr/gj-clover T.062)361-5900
국제개발협력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네팔(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T.070)4006-4116 T.02)331-7085 T.02)331-7085

메마른 사회를 비춘 한줄기 희망의 빛



메마른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된 고(故) 이영숙 후원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홀트에 기부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故) 이영숙 후원자는 칙실 평생을 근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0대에 자신을 임신한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복형제들의 구박과 폭력을 피해 17세에 집을 떠나 가사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혼의 아픔과 생활고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식도암 선고를 받았지만 가까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배움의 갈증을 잊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폐에도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미혼한부모 그리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홀트에 평생 모은 재산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입원 중인 이영숙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 대전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찾아가 기도를 드리고 "귀한 후원금을 기부해 주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

하다. 귀한 기부금인 만큼 뜻에 따라 미혼한부모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어제는 건강상태가 매우 어려웠는데 오늘은 괜찮은 거 같다. 서울에서 홀트 회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노력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을 후원하는데 이렇게 이곳까지 직접 내려오시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후원증서와 '명예 탐리더스(홀트 고액 후원자 그룹)' 후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영숙 후원자는 잠시나마 환한 얼굴로 사진을 찍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연신 축스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일행을 위해 잠시 의식을 차려 맞이하고는 다음 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고단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홀트 전 직원은 고(故) 이영숙 후원자를 추모합니다. 더불어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흠뻑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제 12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



지난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가족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에 많은 분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갤러리와 연회장을 후원해주고 있는 (주)호텔롯데와 홀트 임직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입양가족 30여 명입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특히 강원, 부산, 제주 등 멀리서 온 가족이 많았는데요.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제목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들의 수상 소감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진 부문 입상을 받은 다둥이 아빠 최현규 씨는 “시상식에 참석하려고 아이들과 새벽 비행기를 타고 나섰다.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쌓으려고 이사한 제주도는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정말 아름답다. 그 풍경을 함께 나누고 싶어 출품했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해 환호를 받았습다. 동영상 부문 대상을 받은 최병준 씨는 “쌍둥이를 입양해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정말 행복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게 가끔 힘에 부칠 때도 있다. 근데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니 힘이 난다.”고 전해 시상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14가족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 그리고 키자니아 입장권(호텔롯데 후원)이 주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풍경도 감동으로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 아닐까요? 마음 따뜻해지는 시상식 풍경이었습니다. 

글_신유정 · 홍보팀



가정의 달 5월, 홀트에서는 입양의 날이 있는 11일을 기점으로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12회를 맞이한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은 가정의 품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아이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입양가족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진 부문 대상

엄마와 슬래잡기

홍태성



‘이름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사랑’이 덕분에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들 한다는 시험관도 4번인가 했지만 점점 시간만 흘렀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던 어머니는 추석 때 모두 모인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양을 얘기하셨습니다. 입양을 생각만 해왔던 저는 상담을 신청하여 받았고, 입양 부모교육을 받으며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2월 4일, 60일된 우리 사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데려온 날부터 지금까지 한시라도 눈을 땄 수 없었던 우리 사랑이는 이름 따라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죠. 그렇게 바라던 손주를 어머니는 제대로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사랑스런 손녀딸을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생각하면 늘 가슴 한쪽이 아파옵니다. 그럴수록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처럼 우리 사랑이를 사랑해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너그 돌이서 그저 사랑으로 키워라’며 사랑이라고 지어주신 이름 ‘사랑’이. 엄마 지켜보고 계시죠? 부끄럽지 않은 사랑으로 품고 키우겠습니다.



사진 부문 입상



아빠 딸

김인순



‘딸 바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윤정이가 함께하는 가족은 매일이 즐겁습니다.’

2018년 3월 2일 남편이 조금 이른 퇴근을 하고는 옷도 안 갈아입고 거실을 서성대며 윤정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윤정이의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입학식에 부모님들이 오느냐고 말리는 통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도 가만있지를 못하는 남편에게 살짝 눈치를 주긴 했지만, 사실 저도 목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나자 아빠는 벌써 현관에 가 있었습니다. “딸, 잘 다녀왔어? 입학식은 잘했어? 같은 반에 아는 친구 있어?” 거실로 오는 동안 질문세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와~ 교복 진짜 잘 어울린다. 예쁘다”하며 신이 난 아빠의 마음을 알아챈 윤정이가 뒤돌아 “아빠~” 하더니 애교 섞인 웃음을 짓습니다. “윤정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다니 예쁘게 잘 커워서 너무 행복하다. 사랑해”라고 하자, “아빠, 나도 사랑해”라며 안아주었습니다. “아, 잠깐만. 사진 한 장 찍자. 우리 딸 웬 일이야?” 사춘기를 치르며 시크한 모습에 중학생시절 절반동안쯤을 눈치 보게 만들었던 딸의 사랑스런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 5월 23일 그날부터 딸 바보였던 아빠와 딸. 내일도 모레도 꼭 오늘만 같길.



1 이정훈 <달려라 달려>
2 박진숙 <우리는 그냥 가족>
3 전미현 <가족 밴드>



동영상 부문 대상



엄마아빠가 주신 특별한 선물

최병준



‘아빠, 엄마 그리고 오남매가 함께하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아이를 둘 낳고 기르면서 두 아이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부모가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형제를 통해 서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고 이란성 쌍둥이를 입양하면서 모두 오남매가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함께 놀고 책보고 이야기 하고 툭탁거리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눕니다. 첫째는 말합니다. “너무 너무 귀여워”라고요. 둘째도 말합니다. “한 명만 더 입양하면 안 돼요?”라고 말이죠. 이미 이름도 지었다고 합니다. 셋째가 말합니다. “예안이란 예운이가 같이 낳지만 자도 이렇게 심심한데, 동생들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라고 말합니다. 동생은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영상 부문 우수상



그렇게 네가 왔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단다

윤희진



‘여행을 좋아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는 가원이네 가족입니다.’

뭐든 움직이고 지나가고 꿈틀거리는 것이 신기한 호기심 대마왕 우리 딸 가원은 4살이 되면서 서서히 입양을 알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동화책 ‘그렇게 네가 왔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단다’를 읽어주며 가원이가 우리에게 온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부문 수상작



- ❖대상 : 홍태성<엄마와 슬래집기>
- ❖우수상 : 박진숙<우리는 그냥 가족>, 송미경<동생 사랑에 빠진 언니>, 이정훈<달려라 달려>, 최병준<외할머니덕 가는 길>
- ❖입상 : 김인순<아빠 딸>, 송혜림<손에 손잡고 당당히>, 전미현<가족 밴드>, 정정조<신나는 동행>, 최현규<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동영상 부문 수상작



- ❖대상 : 최병준<엄마아빠가 주신 특별한 선물 >
- ❖우수상 : 윤희진<그렇게 네가 왔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단다>, 전미현<사랑하는 우리 딸 라하에게 >
- ❖입상 : 김영주<예성이네 가족이야기>, 이보람<우리는 행복한 입양가족입니다>, 정은주<천일동안의 이야기>, 홍태성<내사랑 홍사랑 사랑이야기>

45명 아이들의 엄마, 박상매 위탁모

“모든 일이 그래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또 어려운 일만 있지도 않죠. 아이들을 잘 키워서 좋은 가정에 보낼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수고로움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에요.” 올해로 16년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지만 자신이 쏟은 사랑과 정성이 훗날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위탁모.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어느 초여름 45명의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낸 엄마, 박상매 위탁모를 만나봤습니다.




“숲속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주택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신월동에 위치한 박상매 위탁모 집에 들어서니 동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발달이 늦은 형준이를 위해 항상 틀어놓는다는 동화 테이프 소리입니다. “형준이가 단어 하나라도 배울 수 있을까 싶어 틀어놔요. 직접 읽어줘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지. 아이가 돌이니 동화 읽어주기도 쉽지 않네요.(웃음)”

인자한 웃음을 지닌 박상매 위탁모는 올해로 16년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품은 아이들만 해도 45명.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헤어짐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들었다가 아이들이 떠날 때는 정말 심장을 때어내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입양부모가 생겨서 가는 건 축복이니까, 빨리 좋은 가정을 찾길 바라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를 돌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몸이 약했던 하율이입니다. “몸무게가 1.1kg 밖에 안됐어요. 워낙 약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돌봤지요. 어느 날 하율이가 밤에 잠을 자다 기침을 한번 했는데, 순간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망설임 틈도 없이 자는 남편을 깨워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명이 위태로웠다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행복한 일도 정말 많다는 위탁모. “형준이는 웃는 게 너무 예쁘고, 정우는 낯을 안 가리고 사람을 좋아해서 참 기특해요.” 아이들 한명 한명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친정 식구들도 모두 아이들을 좋아했고요.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웃음)” 위탁모 활동 전, 10여 년이 넘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던 박상매 위탁모는 영유아기에 정서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부드럽고, 구김살 없이 잘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쏟은 사랑과 정성을 세상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위탁모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는 2015년 ‘사회복지의 날’에 유공자 표창을 받았고, 최근에는 텔레비전,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으나 위탁모 활동을 만류했던 가족들도 이전 저를 다르게 봐요. 아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하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저를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올 때 가장 보람되고 기뻐요.” 인터뷰하는 잠간에도 아이들은 쉼 없이 위탁모를 찾습니다. 간식과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면서도 늘 웃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너무 잘하는 것처럼 나오면 안 되는데(웃음). 위탁모 중에 대단한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위탁모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 행복한, 박상매 위탁모의 오늘입니다. 

글_신유정 · 홍보림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사랑 가득한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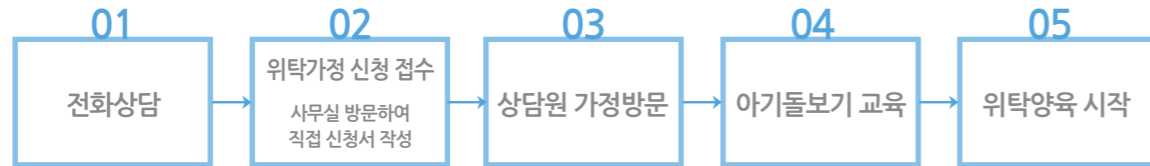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가정위탁보호를 통해 가정과 다름없이 자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1개월에서 3세 미만인 이 어린이들은 지능, 언어, 신체, 정서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안정된 가정 속에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위탁가정 선정요건

- 1) 신청인과 가족 모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가정
- 2) 신청인의 나이가 60세 미만으로 아동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막내가 7세 이상인 가정
- 3) 홀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 살고 있으며, 양육 공간이 여유 있는 가정
- 4) 가족 모두 위탁양육에 협조적이어야 하며, 다른 부업을 하지 않은 가정



위탁가정 선정절차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건강진단서 1부(간염 여부 기록 포함)



위탁가정 지원

- 1)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 2) 아동 양육 물품 지급
- 3) 아동 의료 지원

문의 및 신청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양육팀/ 02) 331-7040~7045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471)
/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8번출구

꿈을 키우는 Mom 행복한 퀸즈마켓

QUEEN'S MARKET



4월 27일, 오전부터 롯데시티호텔 명동 1층 야외광장이 시끌벅적합니다. 올해부터 지정된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홀트아동복지회와 LOTTE GRS가 플래마켓 '퀸즈마켓'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미혼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도모할 수 있었던 그날의 풍경속으로 들어가보시죠!

수제 제품으로 창업의 비전을 보다

아침 일찍부터 판매자와 홀트 스태프, LOTTE GRS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미혼한부모 셀러 15팀(17명)과 팀을 이루어 판매에 도움을 줄 봉사단 25명이 직접 만들어진 물건을 진열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본격적인 손님맞이 준비에 나섭니다.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 일반 셀러 15팀이 참가하기는 했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역시 미혼한부모 셀러. 왁스 타블렛과 디퓨저, 천연비누,

아이 머리핀, 가족지갑, 캘리그래피 액자 등 직접 만들어진 제품들인 만큼 아이를 다루듯 그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실제 이날 참가한 미혼한부모 셀러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제품성을 확보한 상태로, 퀸즈마켓을 통해 제품의 가치와 품질을 검증받고 홍보하는 동시에, 창업에 대한 비전까지 세운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어 참가 자체에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립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LOTTE GRS!

드디어 오전 11시, 물건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 둘 퀸즈마켓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 30분쯤 지나자 식사 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한층 활기를 띠니다.

미혼한부모들의 의지 역시 대단하지만 LOTTE GRS의 판매 열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홀트와 함께 '맘 행복한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돌잔치, 나들이, 환경 개선 프로젝트, 캠프 등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에 동참해온 만큼 노련미가 엿보입니다. 이번 퀸즈마켓 역시 '맘 행복한 미션'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제품 준비비와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기도 했으니, 천군만마보다 더 든든했겠죠? 미혼한부모들 역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계획이라니 기분 좋은 선순환 체계가 또 한번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나눔의 아름다운 순환

정성껏 만든 제품을 하나라도 더 알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 그 와중에 제일 앞줄에서 수제잼을 판매하고 있는 '폼다(185호 인터뷰 기사 참고) 사장님이 보입니다. 밀키트, 블루베리 크림잼, 블루베리 커피잼, 얼그레이잼 등 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을 챙겨 나온 그녀는 50개 판매가 목표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LOTTE GRS 봉사단이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장사를 해주어 순식간에 판매가 완료될 것 같다면서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보니 정말 양증맞은 아기 스카프핀과 핀이 늘어서 있는 가판대가 보입니다. 판매자들이 머리에 핀을 직접 꽂고 홍보하는 열의를 보이는 곳인데요, 취미로 만들어 자신의 아이와 지인의 아이들에게 선물하다 보니 직업으로 삼을 꿈까지 꾸게 되었다고 임선정 씨는 말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있을 때 태교 프로그램으로 들어둔 것이 그녀의 손길과 만나 재탄생한

결과물은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야말로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상품 매진 임박! 오늘의 목표는 자신이 만든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수익금 전부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날 참가자들은 수제 상품의 가능성과 나눔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미혼한부모들의 워너비, 김미경 강사가 떴다!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시각, 스타강사 김미경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마켓에서 미니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 데요, 다소 이른 시간에 도착해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마켓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느낍니다. 머리에 직접 핀을 꽂아보기도 하고 비누의 향을 맡아보는 등 역시 미혼한부모들의 워너비다운 태도에 엄마들의 에너지가 급속히 재충전됩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미경 강사는 미혼한부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첫 인연에 대해 말한 후, "그녀들과 함께하는 과정은 나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히며 오히려 미혼한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현장 상담이 이어졌는데요, 판매자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는 시간으로, 앞으로 불려내 계단에 나란히 앉아 그들의 속을 풀어주는 파격적인 진행을 선보였습니다. 아이 문제, 고부갈등 등에 대한 그녀의 시원한 입담에 내내 와르르 웃음폭탄이 터지던 현장.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체중 10kg을 감량하고, 미혼한부모를 돕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해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좌중의 많은 공감과 응원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미혼한부모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퀸즈마켓은 오후 7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셀러들은 가벼운 손과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좋은 제품뿐만 아니라 미혼한부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판매자와 봉사자, 구매자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알찬 프로그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은 가을에 열리는 퀸즈마켓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HAPPY



밝음을 더듬어 쓴 글로 '제13회 전국장애인문학제' 대상



<100세 노인과 나리꽃>
김성녀 님



Interview

급성 녹내장으로 어둠에 갇혀 헤매기를 1년.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었던가. 눈을 잃었지만 '글'이라는 새로운 문을 연 김성녀 씨는 올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린 수필로 '제13회 전국장애인문학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이 끝나는 절망을 느꼈던 것도 잠시, 그녀의 진정한 삶의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는다는 것, 갑자기 내가 살던 세상의 전원이 꺼져 어둠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다"고 말할 그런 일을 김성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겪었다. 두통과 열감기로 잠 못 이루다 새벽녘에야 설핏 잠들었다 깨어보니 햇살이 가득해야 할 방이 온통 회색빛이었던 것이다. 너무나 당황한 그녀는 "이게 뭐야!" 소스라치며 일어나 두 눈을 비볐지만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뿌연 안개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남편을 부르며 두려움으로 차오른 눈물을 쏟아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급성 녹내장. 하늘이 무너져내린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절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니었죠. 눈만 아니면 뭐든 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눈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나마 처음 10년은 괜찮았어요. 50세쯤 됐을 때 상태가 확 나빠져 전혀 안 보이게 되면서 어둠에 갇혀버린 거죠."

1년은 장애를 인정하지 못한 채 지인들에게 눈이 먼 게 들통날까봐 애면글면 보낸 시간이었다. 알면 더 마음 괴롭고 힘들어할까봐 남편에게조차 숨기려 했고, 더 이상 숨기기 힘들어진 다음해에는 남편과 시골로 이사를 가며 모든 것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25년이나 운영하던 학원 문을 닫았기에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잘 다니던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옮긴 딸아이에게는 성인이 된 지금도 미안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아이가 자라는 걸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춘기를 겪으며 얼굴에 수줍게 돌아온 여드름도, 피어싱을 했다는 자그마한 귀도, 또 최근에는 짧게 잘랐다는 머리카락도 볼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파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딱 1초 만이라도 눈을 뜨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웃음)."



신세계를 열어준 스마트폰 도서관

하지만 2년 전, 그녀는 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희망이란 걸 가지게 됐으며 요즘은 정말 행복하기까지 하다고. 바로 시각장애인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시각장애인" 하면 안마를 주로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침, 진단 병리, 임상, 전기치료 등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곳이에요. 손에 힘이 없어 걸레도 제대로 못 짜던 제 손이 사람들의 목과 팔을 고쳐 움직이게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50세가 넘어 배움의 재미와 자부심에 푹 빠졌죠. 그중에서도 '책 읽어주는 도서관'이나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같은 스마트폰 도서관은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존재예요. 터치만 하면 신간과 베스트셀러 도서들을 접할 수 있으니 이런 신기한 세상이! 제겐 새로운 세상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읽지 못했던 수많은 책을 접했고, 고전과 추리소설, 인문·과학 등 장르를 넘나들며 즐겼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 닥친 장애가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느낄 만큼 그녀는 행복하고 즐거웠다.

“이번 대상도 그 덕분에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결혼 후에는 교회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스마트폰을 통해 책을 읽다 보니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됐고,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용기도 낼 수 있었죠. 물론 제가 직접 모든 작업을 하지는 못해요. A4 용지에 붉은 사인펜으로 간신히 글을 쓰면, 딸이 워드 작업을 대신해주고, 그걸 읽어 주면 들으면서 수정 작업을 해요. 한번 집중해도 2~3시간 쓰는 게 전부지만, 전 제가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요.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일도 하게 됐고, 아마추어지만 작가로도 활동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와 수필, 소설 등으로

계속 쓰고 싶어요.”

그녀는 장애로 눈을 잃은 대신 10가지도 넘는 행복을 얻었다고 말한다. 만약 정상인으로 살았다면 감히 글을 쓸 엄두나 낼 수 없었겠냐며... 그러나 후천적인 장애를 얻었을지라도 힘껏 용기를 내 보라고 그녀는 조언한다. 내딛는 발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까봐 겁을 내지만, 막상 문을 열어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남편과 딸, 종교의 힘이 없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그녀는 “딸이 저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라며 빙그레 웃어 보인다. 그녀의 미소를 한없이 맑고 예쁘게 해주는 그 존재들은 그녀에게 아마 빛과 같으리라.

지면을 빌어 그녀에게 빛이자 희망이며, 대상작의 주인공이기도 한 남편과 딸의 이야기가 담긴 <100세 노인과 나리꽃>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한다. 

2018 제13회 전국장애인문학제 대상작

김성녀

100세 노인과 나리꽃

찌렁찌렁 독불장군처럼 열기를 뿜어내던 한여름이 어느 하루를 정점으로 풀이 죽었던지, 가을에 기가 죽어갔던지 조금 시원해지고 있다. 100세 노인 내 남편은 나리꽃이 사그라지는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우리 부부는 공릉천을 산책할 때마다 나리군락을 이룬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한해, 두해 갈수록 나리꽃은 땅을 넓혀나가 나의 맘을 사로잡았다. 물론 나는 시각적 기억을 끄집어내어 남편이 설명해주는 대로 나만의 나리꽃을 연출한다. 주황색이던가, 다홍색이던가.

점박이가 박혔다니 우리나라 토종 나리꽃이 틀림없으리라. 남편은 목장갑을 끼고 나리꽃 앞에 가려진 덩굴을 제치기 시작했다. 어지간히 해도 워낙 형클어진 침녕쿨이며 잡풀들은 제멋대로 억셧다. 며칠이 지나 남편은 아예 낫을 들고 가서 그 영킨 심술쟁이들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이리와 보라며 내 손을 잡고 나리꽃을 만져 주었다. 나는 이렇게 100세 남편의 사랑에 울컥하며 나리꽃을 만졌다. 나리꽃은 의외로 뽀뽀한 마분지 같았다. 나는 “우와, 정말 튼튼하다”를 연발하였다. 나리꽃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고고하고 자부심 있는 이파리와 근육질이 있는 줄기로 이 여름을 아주 잘 살아내고 있는 듯했다. 마치 나처럼, 100세 노인과 나리꽃은 촘촘한 사랑으로 한여름의 로맨스를 엮어가고 있다.

어제가 마흔 아홉 살, 오늘이 쉰이 되던 날이었던가? 전날 밤 두통과 열감기로 잠을 못 이루다 새벽녘에서야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방이 온통 회색빛 연기 속에 갇혀 있었다. “이게 뭐야!” 외치며 일어나 눈을 비벼도 여전히 안개가 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여보, 앞이 안보여” 날벼락 같은 눈물과 함께 청천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급성 녹내장이었다. 이걸 절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

-중략-

제13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수상작품집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의 소식을 전하게 된 월드프렌즈NGO 봉사단원 김다정입니다. 월드프렌즈NGO는 국제개발협력NGO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을 통해 봉사단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초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한창 추울 때 캄보디아에 와서 이곳의 더위가 조금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캄보디아 무더위는 저에게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 약 60%의 전기를 수입하다 보니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심치 않게 정전이 되곤 하는데, 기온이 올라가는

4월 건기 시즌에는 그 횡수가 증가합니다. 기온이 최고로 올라갈 때의 정전은 저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은 홀트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과 낯선 저에게도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여주는 아이들 때문일 것입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는 수도 프놈펜의 철거민 정착촌인 트라피앙 안찬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급식, 교복지원 등의 사업과 지역민을 위한 빈곤가정 쌀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홀트의 미션, '사랑을 행동으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월급이 적다보니 학생에게 수업 자료, 보충 수업 등의 사유로 돈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어렵고, 종종 유급이 됩니다. 홀트드림센터는 이런 아이들에게 캄보디아어를 교육하고 문해력을 높여,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영어교육, 공교육에서 시행하지 않는 예체능 교육(캄보디아 전통 무용 압사리수업, 태권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생일 축하 파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초등학교가 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홀트드림센터에서는 등록아동들과 선생님이 함께 마을정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함께 센터에 모여 이달의 모범 아동 시상상을 하고, 생일축하파티를 진행합니다. 아동 개개인의 생일을 챙겨주기 어려운 가정이 많아 생일축하파티에서 축하를 받는 아동, 축하해 주는 아동과 선생님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공교육에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한 문화체험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3월 마지막 주에는 캄보디아의 전통 설날인 '졸츠남'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전통 놀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닐 때 했을 법한 놀이를 하며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신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음에 저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진심을 다해 함께 하는 센터장님과 선생님들, 한국에서 지원해주시는 해외사업팀이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무엇보다도 멀리 한국에서 홀트드림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께서 아동과 1:1 결연을 맺고, 제가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상처를 모두 사라지게 하고, 캄보디아의 빈곤 문제를 사라지게 하고 또 아이들이 혁신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홀트드림센터에서 만들어가는 추억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1 캄보디아 설날인 졸츠남을 맞이하여 전통 놀이하는 아이들
2 다함께 마을 주변을 정리하는 아이들

월드프렌즈NGO 단원으로 얼마동안 이곳에 머물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에 간호사 경력을 발휘하여 이곳의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후원자님들께 전하고 함께 웃으며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요. 

글_김다정 단원 ·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국제협력단과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빈곤아동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큰 원을 품다

“애기 이름은 영어로 주-우드예요”, “오, 그럼 한국이름은 뭔가요?”

“주.드”, “아하하하하”

일을 하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있다. 강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고,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 부부를 만났을 때 첫 느낌은 ‘유쾌함’이었다. 서로를 향해 웃고, 이야기 하는 사람을 향해 웃고, 아이를 보며 웃는 브라이언 하워드, 정다운 씨 부부. 2살 때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브라이언은 꿈에도 자신이 한국에 정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다운 씨와의 사랑은 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선물 했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그리고 먼 길을 돌아 다시 한국으로 온 브라이언과 그의 가족을 만났다.



한국을 기억하며 살아온 어린 시절

“저는 2살 때 목포역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그 해 홀트를 통해 미국 시카고로 입양 됐고,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에서 오래 살았죠. 부모님은 형과 저를 입양했어요. 입양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너를 낳아주신 분은 아마 너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야. 어쩌면 그 덕분에 우리가 너를 입양할 기회를 얻었지. 네가 우리 아들인 게 정말 좋고, 자랑스럽단다’ 항상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전 입양된 게 늘 자랑스러웠어요.”

낯선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다문화 국가인 미국이지만, 종종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를 애정으로 품었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영국에 갔을 때 ‘한국인 입양인’을 향한 낯선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받아들인 것도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의 단단한 자아 덕분이다. “가족과 보낸 행복한 기억이 가득해요(웃음). 부모님은 제가 한국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석했고, 제가 입양된 날이 2월 2일인데 매년 그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 식당을 갔어요.”

한국에서 이룬 나의 가족 그리고 그의 꿈




그에게 1년 정도 여행할 기회가 생겼다. 직장을 그만두고, 양부모님도 돌아가셔서 더 이상 영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세계 여행을 1년 정도 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나라에 정착하자’ 생각하고 떠난 여행길. 그 길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운 씨이다. “터키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친구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재회하기로 하고, 여행을 갔죠. 한국에서 그 친구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 지금의 아내, 클레어(다운 씨)가 있었어요!”

평소에 외부조건보다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다운 씨는 브라이언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브라이언은 입양을 트라우마가 아닌 하나의 가정환경으로 인식했어요. 그 환경에 만족하고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온 사람. 그런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브라이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결혼을 망설이는 남편을 제가 설득했어요(웃음)”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굳건히 하던 그때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다. 부부의 입을 빌리자면 ‘기쁨이고, 경이로움이고, 축복인 주드’.



1 2살 때, 홀트에서 찍은 브라이언의 모습
2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지인
3 환하게 웃는 미소가 자연스러운 브라이언, 다운 씨 부부

브라이언은 작년 3월, 국내 여행 중에 자신이 2살 때 발견되었던 목포역 근처 파출소를 찾았다. 입양 당시 기록이 거의 없어 친가족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했다. 입양기록에 남아있는 단서를 토대로 자신이 처음 발견된 파출소를 가보고 싶었다. 그는 그곳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을 겪었다.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곳... 출발점에서 돌고 돌아 매듭을 지었고, 브라이언은 그것을 하나의 원을 완성한 느낌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드를 보며 저를 돌봐주신 양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사랑 넘치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잘 알아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브라이언, 다운 씨 부부는 언제나처럼 삶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가족이라는 그 원을 밝은 색으로 칠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Happy Holt Day!



봄벌이 따뜻했던 지난 4월, 제1회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해피홀트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홀트의 후원자들이 발걸음해주었는데요, 홀트에 대한 궁금함과 관심으로 모인 후원자들은 나눔에 대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 홀트에 궁금했던 점도 함께 물으며 짧지만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에 오고 싶어 하는 지인을 초대하여 오기도 하고, 엄마 손 잡고 온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주부, 가족단위의 후원자, 홀트에 40년간 후원하고 있는 60대 부부까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30명의 후원자가 함께 했습니다.

'나눔'이라는 공통분모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처음이라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자가 진행한 간단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어색했던 표정을 풀고,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서로의 얼굴을 익히며 조금 더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후원자들의 나눔 이야기를 듣는 시간에는 모두가 집중하여 귀 기울였습니다. 서로 모든 것이 다르지만 '후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나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두 귀 쫑긋!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후원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참 흐뭇했습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한 후원자는 홀트에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후원하고 있는 60대 부부였습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했던 20대부터,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주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후원자에게 후원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보니 자신의 아들도 후원을 하고 있었다며 가슴 벅찬 나눔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창하게 나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곳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금전적인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30대 후원자도 있었습니다. 이 후원자는 적은 금액을 후원하더라도 후원처를 1곳에서 3곳, 5곳, 10곳으로 늘리며 작지만 여러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홀트에서 받았던 나눔을 저도 돌려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학창시절 홀트에서 장학금을 받고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후원자는 성인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며 갚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의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고, 아들을 대학에 보낸 지금까지도 홀트의 오랜 후원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에 한 후원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후원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나눔을 시작했고, 일정 금액이 후원금으로 매달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이 매월 채워지고 있었고,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후원자 자신이 돕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스스로도 채워지고 있었다는 나눔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후원자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홀트가 실천한 나눔 이후의 희망적인 변화를 보며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모든 후원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쾌하고 센스있는 진행을 해 준 강도현 사회자 역시도 재능으로 홀트에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 중 한 명입니다. 이렇게 나눔의 열기로 딱 첫 번째 후원자 소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홀트와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들은 앞으로 '더 큰 가족'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홀트는 지속적으로 후원자들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도 들려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피홀트데이는 매회 다른 테마가 준비되는 정기적인 소모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모두 해피홀트데이 되세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춘기에 접어든 12살 은혜가 견뎌야 하는 외로움과 분노는 오롯이 혼자만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는 행동마다 '버릇없다'고 야단하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혹시 나를 또 비난할까봐, 나를 넘어서 엄마를 비난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참고 견디는 일 뿐이었습니다. 은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친구들을 사귀는 때도 늘 자신 없고 주눅 든 모습을 보였고, 그런 은혜가 걱정이 되신 선생님은 홀트인턴심리상담센터에 상담 의뢰를 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수업이 다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은 은혜는 오늘도 집에 가는 것이 싫어 하교하는 친구들의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마음을 다잡고 집에 돌아오지만 막상 집의 모습을 보고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손으로 막아봅니다. 은혜에게는 지적장애와 우울증으로 집밖에 나오지 않는 엄마와 행동조절이 어려운 지적장애 3급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받던 아빠는 엄마와 이혼 후 현재 연락이

달지 않습니다. 자신이 왔음에도 얼굴 한번 봐주지 않고 휴대폰 게임만 열중하는 엄마가 야속하지만 엉망인 집을 보고 한숨 쉴 외할머니를 생각하며 은혜는 집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누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남동생은 은혜가 치워놓은 것을 다시 흐트리며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화가나 큰 소리로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 막 집에 오신 할머니는 동생에게 소리 지른다며 또 은혜만 나무라십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은혜가 처음 놀이치료를 받으러 센터에 온 날, 은혜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치료사를 경계하면서도 관심을 받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초상담을 진행해보니 은혜는 또래관계 및 학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 충동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더 힘들어하기 전에 심리적 지지 및 사회불안에 대한 심리치료가 시급하였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의 말에 말없이 울기만 한 은혜. 인천심리상담센터에서는 현재 은혜의 심리 상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미술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은혜와 은혜동생이 함께 센터에 방문한 첫 날, 담당 선생님은 어머니와 작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치료가 있는 날, 꼭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데려오세요."

우리의 약속, 한 걸음 한 걸음

이후 집 안에만 있던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센터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점차 자신의 청결에 대해서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다른 보호자들과 대화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변화와 더불어 안정적 심리치료를 통해 은혜는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짝 친구가 생기고 발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꾸준한 한걸음이 모여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



어느새 집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혜와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은혜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이해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나를 이해할래요." Holt

글_정지수 · 복지전략팀

홀트심리상담센터에서는 은혜와 같은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치료가 더 필요하지만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 www.holt.or.kr/heal

심리상담센터 소개

홀트아동복지회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을 비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과 가정을 돕기 위해 전국에 총 7개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홀트는 역량있는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심리상담 분야 석사이상 학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연구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홀트는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개별적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홀트는 입양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입양 후 사후관리를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입양아동 및 부모를 위한 전문심리상담(아동놀이, 미술, 언어치료, 부모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 홀트는 공신력있는 기관과 협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드림스타트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실시합니다.



• 홀트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설립한 심리상담센터로, 수익의 일부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의 가족복지를 위해 지역사회로 재투자됩니다.

상담프로그램



심리상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집단, 가족, 부모에게 전문 상담을 통한 자기 이해를 돕고, 당면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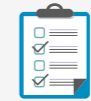
언어발달상담
언어 발달 지체, 말더듬, 조음 장애 등 의사소통 문제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과 성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미술심리상담
감정이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과 성인에게 미술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감정 표현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놀이심리상담
놀이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연령에 맞는 상담을 통해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 합니다.



학습심리상담
학업에 흥미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의 적성, 성격 등을 파악하여 학업 동기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학업의 방향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집단상담(아동 및 가족, 입양부모집단상담)
비슷한 욕구를 가진 소수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고 소통하며, 공감과 지지를 통해 문제해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부모/가족교육
부모역할 교육, 가족의사소통교육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행복한 가족을 만듭니다.

★ 상기 내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3층 (연락처 : 053-627-8875)

▶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연락처 : 032-424-5839)

▶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 (연락처 : 062-363-8878)

▶ **본리복지관 놀음심리상담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14 (연락처 : 053-213-1008)

▶ **홀트수영복지관 가족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연락처 : 051-760-3600)

▶ **운봉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연락처 : 051-543-2431~2)

▶ **하남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천서로 9 (연락처 : 031-790-2900)



아이들에게 하얀 우유수염을 그려주세요!

배우 이민호 기부브랜드 프로미즈와 함께한 나눔프로젝트



945명의 참여, 목표치의 942% 달성으로 성황리에 펀딩 종료!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까지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

홀트에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3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없어 위탁가정의 돌봄을 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통통한 볼에 순한 눈매가 사랑스러운 진우(가명, 32개월)도 그중 한 명입니다. 진우를 돌보는 위탁부모님은 진우가 자라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아이의 시간이 조금은 천천히 흐르길 바랍니다. 뚝뚝한 진우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된 채 새 가족을 만난다면 아이는 분명 위탁 가정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그리워할 테니까요. 아이들이 엄마아빠를 만나기 전까지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야, 건강하게 자라줘

아이들을 함께 돕기로 약속하고 2016년부터 함께해온 배우 이민호 기부브랜드 '프로미즈'와 홀트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유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프로미즈에서 자체 제작한 특별 한정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금 전체를 기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이버 해피빈도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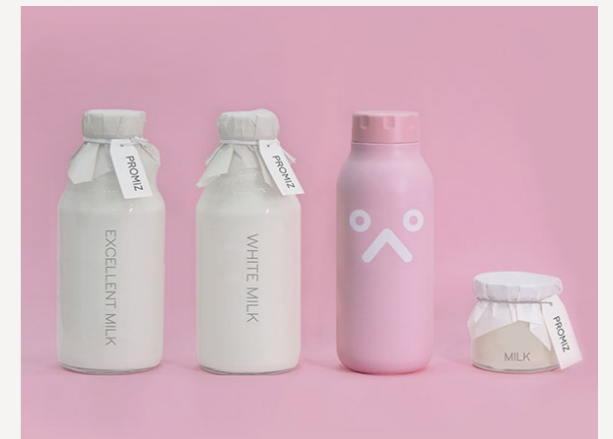
펀딩 목표 942% 초과 달성!

드디어 시작된 프로미즈의 2018년 첫 번째 프로젝트, 입양대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유수염 프로젝트 '우수하다' 해피빈 공감펀딩을 통해 네티즌 분들께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프로미즈는 우유를 마신 후 입가에 남은 우유 자국을 형상화한 '스' 모양과 프로미즈 우유병의 그래픽 모티프를 사용한 디자인으로 텀블러 보틀과 유기농 면 손수건, 배지 2종까지 총 3가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펀딩은 945명의 참여로 목표치의 942%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후원뿐 아니라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해주시신 응원은 아이들이 앞으로 한발 한발 걸어갈 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얀 우유수염을 그려주세요!

펀딩이 끝나 아쉬웠던 분들을 위한 꿀팁! 현재 프로미즈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하다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수익금 전액이 입양대기 아동 우유 지원에 사용되는 우수하다 프로젝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하얀 우유수염을 그려주세요!

클_이예스더 · 나눔협력팀



우수하다 프로젝트 제품



PROMIZ
since 2014



우수하다 프로젝트 바로가기

HOLT NEWS

본부

홀트바자회 진행

5월 4일, 한부모가정지원을 위한 홀트바자회가 진행됐다. 후원받은 장난감, 아동용품, 의류 등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 전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위해 사용된다.

15회 땅굴시장 기부금 전달식



4월 26일, 15회 땅굴시장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전달식에는 말리 홀트 이사장이 참석하여 입양가족으로서 나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했다.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서 진행된 15회 땅굴시장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 및 꿈 지원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마세라티, 골프 인베이션셔널 참여기금 전달식



4월 24일, 경기도 이천 웰링턴CC에서 이탈리아 럭셔리 마세라티의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후원금 5천만 원은 2018 마세라티 골프 인베이션셔널의 참여기금(인당 20만 원)과 ㈜FMK의 기금을 더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마세라티 골프 인베이션셔널의 참여기금은 매년 학대피해아동과 시설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된다.

현대홈쇼핑, 휠체어농구대회 기부금전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홀트장애인 종합체육관에서 현대홈쇼핑의 2천만 원 기부금전달식이 진행됐다. 후원금은 제24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 전달되었다. 현대홈쇼핑의 휠체어농구대회 후원은 단발적 기부가 아닌 지속적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에스-오일(주) 서울지역사회봉사단 기부금 전달식



3월 29일, 에스-오일(주) 서울지역사회봉사단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홀트를 포함한 16개 봉사활동 기관과 에스-오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담당자가 간담회와 전달식 자리에 참여했다. 에스-오일(주)는 2008년부터 11년째 홀트와 함께 하고 있으며, 올해 후원금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빛의 자녀들교회(대한연합선교회) 가족사랑예배 진행



3월 25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강당에서 빛의

자녀들교회(대한연합선교회)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을 진행했다. CCM 가수이자 홀트 홍보대사인 박요한 씨의 마음을 울리는 간증과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줬다.

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 봉사활동 및 후원금 전달



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과 3월 7일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자립홈 대상자들이 임직원 봉사단에게 손수 작성한 감사편지를 전달하여 감동을 더했다. 3월 11일에 임직원 봉사단은 봄맞이 대청소로 자립홈 장애청소년에게 쾌적한 거주 환경을 선물했다.

지방사무소

대구사무소, KB국민은행 후원금 전달



4월 30일, KB국민은행 내당동종합금융센터 임직원이 지역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자 대구사무소를 찾았다.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준 후원금은 미혼한부모와 입양대기아동을 위해 귀하게 사용된다.

충청사무소, '참 행복한 우리가족 나들이'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2일, 대전광역시 주최로 대전, 충남북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참 행복한 우리가족 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탁모 송은정 씨가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약 450여 명의 입양가족이 모여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곳은 날씨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신 입양가족과 자원봉사자 대전광역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사를 전한다.

인천사무소, 제13회 입양의 날 기념식



5월 11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제13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입양가족, 인천시 관계자, 일반시민,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는 입양가족의 축하공연과 입양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2부에서는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입양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의 자리가 되었다.

일산복지타운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후원 '태안틀림축제'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후원, 2018년 티콤버스 테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월 10일 꽃자해수욕장

에서 열리는 태안틀림축제에 다녀왔다. 일산복지타운 가족들은 따뜻한 봄 바다와 화려한 틀림을 보며 멋진 사진도 남기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 사업은 총 4회에 걸쳐 계절별로 진행된다.

두원공업대학교 보육복지과와 MOU체결



5월 3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및 아동보육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두원공업대학교 보육복지과와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기존의 다양한 교류가 이번 협약으로 공고화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홀트학교

수요예술마당 진행



4월 18일,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악기를 선정하여 매주 수요일에 배우는 '수요예술마당'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악기와 노래를 통해 친구들과 화합을 배우고, 협동심을 고취하여 정서적 기능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학생자치회 선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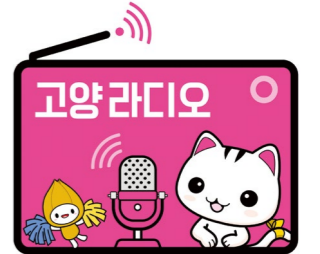
3월 21일, 학교의 리더를 뽑는 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선도활동, 봉사 생활 태도를 함양했다.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장애인복지관, '고양라디오' 개국



5월 17일 더 많은 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 고양라디오를 개국했다. 작년부터 시작한 팟캐스트 교육을 통해 탄생한 DJ들이 진행하는 방송으로, 방송은 팟백에서 '고양라디오'를 검색하면 들을 수 있다.

대구복지관, 어르신 효도잔치



5월 10일, 어버이날기념 홀트어르신 효도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내 독거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성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여하여 케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머니 마음 합창,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운봉복지관, 제26회 개관기념식 및 주민축제



복지관 개관 26주년을 맞이하여 3월 28일 지역주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개관 기념식 및 마을 축제를 실시했다. 지난 2월부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축제 준비위원회를 통해 축제를 기획하여 내용이 더욱 풍성하였으며, 동그라미 재능기부봉사회의 지원으로 맛있는 제육덮밥을 함께 나눔 수 있었다.

하남복지관, '도담도담 멘토링' 결연식



3월 31일,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결연식을 개최했다.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활동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수영복지관, 광안리 어방축제 참여



4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행복나눔 페스티벌(어방축제)이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구의 큰 축제이자,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및 민간서비스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수영복지관은 어방축제에 참여하여 기관홍보에 힘쓰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본리복지관, 따뜻한 반찬나눔 서비스



본리복지관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대상자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는 따뜻한 반찬 나눔을 실시한다. 매월 소고기 후원을 지원해주는 일월식육식당 대표와 늘푸른봉사단에게 감사를 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들, '어울려 좋은 데이'



월 1회 '대전어울림봉사단'과 진행되는 '어울려 좋은데이'를 실시했다. 대전어울림봉사단은 가족봉사단으로 약 40여 가족이 아침들에서 조경관리, 청소, 침구세탁 등 환경개선 봉사에서부터 급식봉사와 아이돌봄 봉사로 헌신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정 30세대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등 큰 힘이 되고 있다.

아름들, '미혼엄마들의 자립디딤돌' 우수프로그램 선정

3월 2일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미혼엄마들의 자립디딤돌-문화의 힘'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문화 향유를 통해 자존감 향상, 자립의지 촉진 및 인문적 소양을 높여 좋은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 관람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클로버, 소방대피훈련



3월 9일, 대구 클로버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소방대피훈련은 본리 119안전센터에서 방문해 진행해 주었으며, 화재 발생 시 각자 역할에 맞춰 신고, 대피 훈련,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대전클로버, 아동 돌잔치



대전 킹덤에서 지식(가명)군의 돌잔치가 있었다. 대전클로버 가족들과 후원자분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해주고 행복과 건강을 기원해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광주클로버, 새봄맞이 날들이 다녀와

3월 2일부터 5일까지 새봄맞이 날들이 제주도를 다녀왔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테마공원 등을 돌아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아이들과 엄마들은 즐겁고 신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엄마들은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더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장인 결혼이민자를 위한 집합한국어교육 저녁특별반 개강!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25회기에 걸친 집합한국어교육 저녁특별반을 개강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마련된 저녁특별반을 통해 수강생 모두 한국어 실력이 향상하길 바란다.

전주영아원

제16회 전라북도 꿈나무 체육대회

4월 21일, 익산 금마 체육공원에서 도내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어서 직접 참가 하지 못했지만, 페이스페인팅, 팝콘 등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아동들이 넓은 공간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육구 발산으로 심리적인

홀트어린이집, 숲체험



4월 27일, 만4~5세 유아들이 숲체험 시간을 가졌다. 올챙이도 보고, 새소리 듣고, 손톱도 예쁘게 물들이고, 봄꽃도 관찰하며 넓은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즐거운 체험을 했다.

심리상담센터

대구심리상담센터, 양육토크콘서트

매월 여성아이병원 문화센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 엄마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또한 이번 양육토크콘서트를 통해 예비 엄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후원회

전국후원회 이사회



4월 6일, 홀트인천후원회 주관으로 '2018년도 전국후원회 이사회 회의'가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동북아물류 E-Biz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전국후원회 임원진 선출 및 후원모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홀트 후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각 지역 후원회 회장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정, 신체 발달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인천 어린이박물관 견학



4월 27일 만4.5세 어린이들이 인천 어린이박물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여러 나라 악기 체험, 3D영화 관람, 다양한 과학 원리를 이용한 물·모래 놀이 등 몸으로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마포어린이집, 교통안전교육



3월 12일에 마포경찰서 주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통경찰관이 교실을 직접 방문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유아들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해 쉽고 재미있는 PPT,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이용한 이론 강의와 모형 신호 세트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졌다.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선 홍보대사

국내 해외 아동결연 후원문의

HERB & HUB 1899-0923

주인기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오늘 일거야 — 좋은 일이 **per-fect day**

